

한국 영화론

일제 강점기 국책영화/ 친일 영화



1등장 시대 배경

1. 영화 정책 변화

- 1920년 4월 조선 총독부 영화반 설치
- 1926년 8월 '활동사진 필름검열 규칙'시행,도에서 경무국 도서과로 통합
- 초기 조선 영화 사상 검열에서 1930년대 중반 미국영화의 영향력 제지
- 1934년 '활동사진 영화취체규칙'
- 1930년대 말은 식민 지배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부각, 국책영화 제작 분위기

2. 국책영화 방향

-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의 전 과정 통제, 시나리오 사전 검열, 필름 검열, 상영장 검열

3. 제도적 통제

- 조선영화령으로 검열과 통제 제도화
- 1942년 2월 조선영화 배급사, 1942년 9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창립
- 조영은 1년에 극영화 6편, 문화영화 5편, 뉴스 12편 제한
- 관객의 선택권 제한, 영화인의 제작 참여 기회제한

2 친일/국책영화 개념

가) 친일 영화

- 내용에 대한 문제 -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과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영화
- 시기의 문제 -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7년 이후로 제한
- 제작의 강압성 문제 - 중국 흔들림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대안으로, 내선일체를 통한 황국신민화기도
- 친일과 국책 구분 : 친일영화는 대동아 공영권의 전쟁동원과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영화로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

2 친일/국책영화 개념

나) 확장과 혼용된 용어

- **군국주의 어용영화**: 군국주의 영화란 한마디로 군사력에 의하여 국위를 나타내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이를 위해 계몽 설파하는 목적영화
- **국책영화**: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전시 동원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시책의 영화를 지칭, 역사적 가치판단 배제
- **어용영화**: 영화예술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저버리고 그 시대의 권력가나 기관에 아부하여 그의 정책에 공명하는 영화. '친일영화'는 스스로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여 협조하는 영화, '국책영화'는 권력기관이 추구하는 정책을 계몽하기 위해 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영화
- **합작 선전영화**: 일제의 정책선전을 식민지 주민에게 주입하기 위해 합작 형태로 식민지의 인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제작된 영화

2 친일/국책영화 개념

나) 확장된 용어

***친일영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대동아 공영권의 전쟁동원과 내선일체의 황국 식민화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낸 영화

***국책영화**

- 식민지 치하와 유신체제기를 포함한 강압적 독재 권력의 통치기에 국가정책과 정권의 홍보 목적으로 국가 기관의 지원에 의해 직접 제작되었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유통된 영화
- 한국영화사에서 문화영화와 국가 직접 제작 영화 이거나 국영화된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 + 상업 영화
- 국가 시책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적극적, 소극적 호응하는 영화 (유신체제기 새마을영화, 문예영화, 반공영화)

3 국책영화의 기원으로서 문화영화

- **문화영화** : 1930년대 일본에서 도입, 우파 영화, 교육, 계몽 영화, 전쟁 기록영화, 과학 영화, 민족 영화 등 기록영화를 통칭, 이데올로기 전파와 국민 통합 목적
- **위생영화** : 독일의 공중 위생 정책의 핵심인 건강관리와 위생을 합하여 위생으로 번역. 국가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에 위생 경찰 제도 설치,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방제하는 국가 권력 부여
- '위생활동 사진회' 개최, 일반 극영화와 동시 상영, 학교, 병원, 직장, 회사, 유랑극장, 천막극장에서 수시 상영(독일)
- 독일은 매독, 조선은 콜레라, 정식 영화 앞에 <호열자>, <월하의 맹서> 상영
- <월하의 맹서>는 체신국에서 우편 저금의 장려용 영화. 1923년 조선 호텔에서 상영

4.친일 국책영화의 이데올로기

친일영화의 이데올로기는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적 천황제 파시즘이다.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한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

천황제 가족주의에서 천황은 가장, 신민은 적자로 한 가부장적 가족구조,
천황을 위해 죽은 이들은 신이 되어 야스쿠니 신사로, 그 영은 벚꽃으로 개화

황국신민화 정책

신사참배, 국기게양, 황국신민서 제창, 일본어 보급, 지원병 제도 실시, 징병 제도 실시
지원병제
선전 인적 보충이자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을 도울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

5. 국책영화의 범주와 이데올로기

내선일체와 지원병 제도의 선전



<그대와 나>, <망루의 결사대>

- 촬영 육군성 지원, 일본 만주 영화인 동원
- 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내선일체
- <망루의 결사대> : 조선과 만주 국경을 지키는 경찰의 활약

내선일체와 징병제 선전



<소화 19년>, <병정님>, <사랑의 맹세>

6. 친일국책영화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1. 천황제 가족주의와 대동아 공영권

친일영화의 이상적 인물은
천황에 대한 충성

- <집 없는 천사>(1941, 최인규) 일장기, 고아원 아이들 황국식민서사, 천황에 대한 충성, 무관한 장면, 검열회피용 아니면 친일사상 재현
- <반도의 봄>(1941, 이병일) 사장 연설로 내선일체 강조
- <지원병>(1940, 안석영) 내선일체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발언
- <사랑과 맹세>(1945, 최인규) 천황을 위한 순국 강조

황국을 위한
전사의 신격화

- <조선해협>(1943, 박기채) 군 입대 전 창경궁 벚꽃의 암시
- <사랑과 맹세>(1945, 최인규) 진해 해군부 입대 전 벚꽃의 대로

일선 동조론과
일본어 사용

- <그대와 나>(1941, 허영)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 옷 바꾸어 입기
- <망루의 결사대> 조선인 여자 기모노, 조선인 어린이들 기미가요, 노인들은 일본어

6. 친일국책영화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2. 지원병 제도와 징병제 홍보

조선인의 지원병 권유

- <지원병> 가난한 엘리트, 국가 위한 결단, 모친은 그를 이해하고 약혼녀는 기다리고 마을은 경사
- <그대와 나> 최초 조선인 지원병 전사자인 이인석을 모델로, 황군으로 충성 위해 가족의 희생

징병제 수용

- <젊은 자태> 징병 대상이 된 학생들 군사훈련
- <사랑과 맹세> 부랑아들 일본인 가정에서 보살핌 받고 군 입대

3. 내선 결혼 장려와 총후 부인 이미지

내선 결혼 장려

- <그대와 나> 우생학적으로 내선 결혼 장려

국군의 어머니, 아내 상인 총후 부인

- <조선해협> 어머니가 아들 지원병 지지, 부인은 애국반에서 활동
- <거경전>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군으로 돌려보냄,
- <사랑과 맹세> 부인은 총후 부인

6.친일국책영화 작품

1941

- 1941. 최인규의 <집 없는 천사>(고려영화협회), 안석영의 <지원병>(동아흥업사), 전창근의 <복지만리>(고려+만주), 이병일의 <반도의 봄>(명보), 허영의 <그대와 나>(조선군 보도국)

1942

- 안석영의 <흙의 결실>(조영), 방한준의 <풍년기>(조영)

1943

- 김영화의 <우러르라 창공>(조영), 박기채의 <조선해협>(조영), 풍전사랑의 <젊은 모습>(조영), 김정정의 <망루의 결사대>(조영)

1944

- 방한준의 <병정님>(조선군 보도부), 최인규의 <태양의 아이들>(조영)

7. 국책영화의 명암

1. 제작의 위축과 표현의 자유 제한
2. 식민지 관객을 교화의 대상으로, 영화를 선전의 수단으로 전략
3. 자생적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을 저해
4. 동아시아 시장과 영화의 기업화 시도
5. 국가와 시장의 축에서 국가 주도형 영화는 이후 유신국책영화로 이어짐

8. 참고문헌

강성률, 『친일영화』, 민예총문고, 2006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 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김종원, 한국영화사와 비평의 접점, 현대 미학사, 2007

김종원정중헌 『우리영화 100년』, 현암사, 2001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이영일 『한국 영화전사』, 소도, 2004

강성률, 「친일영화의 내적논리연구」, 2007,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김금동, 「독일 위생영화를 통해 본 조선 콜레라위생영화(1920)와 천연두위생영화(1922)의 특징과 한계」, 영화연구 55호, 2013

김려실, 「일제말기 합작선전영화의 분석」, 2005, 영화연구 제 26호

김수남, 「일제 말기의 어용영화에 대한 논의」, 2005. 영화연구 제26호

문재철, 「일제 말기 국책영화의 스타일에 대한 일 연구」, 2006, 영화연구, 제 30호